

고, 시키나엔은 슈리성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난엔」(南苑)이라고 불렸습니다.

시키나엔의 조원 형식은 못 주위를 거닐면서 경치의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 「회유식 정원」(廻遊式庭園)입니다. 회유식 정원은 근세에 일본의 다이묘(大名)들이 서로 다투어 만들었던 조원 형식이지만, 시키나엔 못 한 가운데의 섬에는 중국식 정자 육모정과 크고 작은 반원형 다리가 배치되어 있고, 못 주위를 류큐식 회암으로 쌓는 등 류큐에 독특한 고안이 엮보

기념스탬프

국가 지정 명승

시키나엔 識名園

시키나엔 개요

시키나엔(속칭·시치나우둔)은 류큐 왕실 최대의 별저로서 국왕 일가의 보양과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18세기 말엽에 건설되어 1800년에 쇼온(尙溫)왕을 책봉하기 위하여 방문한 정사 조문해(趙文楷)와 부사 이정원(李鼎元)이 이곳에 초대되었습니다.

왕실의 별저로서는 17세기 후반에 슈리의 사키야마무라(현재의 슈리 사키야마초)에 우차야우둔이 만들어졌습니다. 슈리성 동쪽에 있다하여 우차야우둔은 「도엔」(東苑)이라 불리기도 하



*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 주십시오.

- ② 시키나 카이난 선
- ③ 마쓰가와 신토신 선
- ⑤ 시키나 마키사 선

시키나엔 앞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 1분

휴원일 수요일(그 날이 휴일 또는 위령의 날에 해당할 때는 그 다음날) 단, 임시 휴원할 때가 있으므로, 오시기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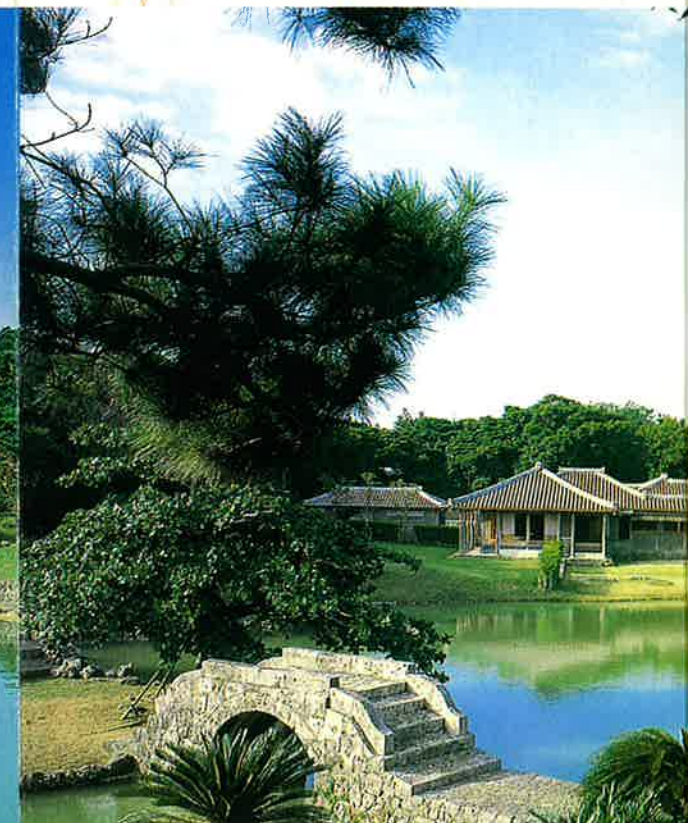
개원시간 4월 1일~9월 30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10월 1일~3월 31일 오전 9시~오후 5시

관람료 대인 400엔 (단체 320엔)
소인 200엔 (단체 160엔)

* 단체 대상은 20명 이상

비고 1. 소인은 중학생 이하를 말합니다.
2. 보호자가 동반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시키나엔관리사무소/(902) 나하시 아자 마지 421-7
識名園管理事務所/那覇市字真地421-7(902) 전화 (098)855-5936



입니다.

시키나엔은 알찌기 봄이 오면 못 동쪽의 매화나무 숲의 매화꽃이 만발하여 향기가 그윽하였고, 여름이면 섬과 섬 부근의 등나무, 가을이면 못가의 도라지가 예쁜 꽃을 피워 일년내내 따뜻한 오키나와에서 사철의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교묘하게 배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정 면적은 약 41,997 평방 미터(약 12,704 평)으로 그 가운데 우둔을 비롯한 모든 건물의

면적은 도합 643 평방 미터(약 195 평)가 됩니다. 1941년에 나라의 명승으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제2차 세계 대전 때 괴멸적인 파괴를 당하였습니다. 1975년부터 정비작업이 추진되어 약 20년의 세월과 약 8억엔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마침내 오늘과 같은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1976년 1월 30일에는 또 다시 나라의 명승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 문(正門)

이 문으로 국왕 일가와 책봉사들이 출입하였습니다. 정문과 통용문은 야아조(屋門)라고 불리는 지붕이 없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아조는 격식있는 저택에만 허용되었습니다. 시키나엔의 야아조는 왕부시대(王府時代)의 격식을 도습한 품위있는 문입니다.



옛적의 시키나엔



육모정(六角堂)

못 속의 섬 위에 선 육모정입니다. 지붕의 모양과 검은 빛 기와가 얹혀있는 데에 중국적인 풍취가 감돕니다. 섬에는 류큐 석회암 한 덩어리로 된 반원형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육덕천(育德泉)

맑고 찬 물이 고인 육덕천은 못의 물줄기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류큐 석회암을 자연 모양대로 서로 맞물리게 쌓는 오키나와에 독특한 아이카타즈미 형식으로 쌓아서 멋진 곡선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오른쪽에도 샘솟는 곳이 있습니다.

샘솟는 곳 위에는 샘을 찬양하는 비석이 두 개 서 있습니다. 마주 보아 바른쪽은 1800년에 쇼온(尙溫)왕 책봉 정사 조문해(趙文楷)가 제자를 쓴 이쿠토쿠센히(育德泉碑)입니다. 마주 보아 왼쪽의 비는 1838년에 쇼이쿠(尙育)왕의 책봉 정사 임흥년(林鴻年)이 제자를 쓴 간레이엔레이히(甘醴延齡碑)입니다. 원래의 비석은 전쟁으로 하체가 파손되었으므로 1980년에 탁본을 기초로 하여 복원한 것입니다.



폭포

못에서 넘치는 물은 돌로 만든 흠통을 통하여 힘차게 쏟아집니다. 옛날에는 폭포 옆에 팔모정(八角堂)이 있어 여름철의 폭서를 피하는데 절호의 장소이었습니다.



우둔(御殿)

우둔은 붉은 기와 지붕의 목조 건물로 옛적의 상류 계급에게만 허용된 격식있는 건축 양식을 갖추었으나 밖으로 내민 차양 등에 민간 가옥의 풍취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본 연호 메이지 말기에서 다이쇼 초기에 걸쳐서 증개축이 실시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525 평방 미터(약 159 평)으로 책봉사를 맞아들인 이치만자(一番座), 이어 니만자(二番座), 산만자(三番座), 부엌, 차노마(茶の間), 메노이치만자(前の一番座), 메노니만자(前の二番座) 등 열다섯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돌다리

못 속에 위치한 섬에는 크고 작은 두 개의 돌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둘 다 다리 중앙이 높아진 반원형의 아치교로서 중국식 디자인입니다.



옛적의 시키나엔



권경대비(勸耕臺碑)

권경대비는 1838년에 쇼이쿠왕(尙育王)의 책봉 정사 임흥년이 제자를 쓴 것으로 손질이 잘 된 논밭을 보고 왕이 진심으로 농민을 격려하고 있다고 칭송하였던 것입니다. 본래 있던 비석은 전쟁으로 파손되었으므로 1980년에 탁본을 기초로 복원되었습니다.



나루터

못에 띄우는 배를 육지에 올리는 곳이었습니다.